

절이 싫은 스님, 절을 세우다

국보 제8호  
보령 성주사지 낭혜화상탑비  
(保寧 聖住寺址 郎慧和尚塔碑) ▶2면

# 현대불교

자기가 얻은 것을 가버려 여기지 말라.  
남을 부러워 하지도 말라.  
남을 부러워하는 자는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한다.  
-법구경

대표내선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865호 2011년 12월 7일 수요일 (음력 11월 13일 · 불기 2555년 · 주간)

## “종교평화불교인선언 내년 상반기엔 발표”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 이하 추진본부)가 조계종 중정 법전 스님의 재검토 요청에 따라 발표가 무산됐던 종교평화 불교인 선언을 2012년 상반기에는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본부는 11월 28일 상임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중정스님의 당부를 수용한 추가 작업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본부장 도법 스님이 직접 중정스님을 예방해 구체적인 말씀을 경청키로 했다.

추진본부는 대중의 공기가 부족했다는 판단 하에 공청회, 집중토론회 등을 개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대중의 공의를 위해서는 불교학 전공 교수 등 전문가와 선언에 강도 높게 비판하는 인사들을 적극 참여시킬 예정이다.

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 헤일 스님은 “결사추진본부는 종교평화 불교인 선언을 위해 추후 일정들을 계속 진행시켜 나갈 것이다. 선언문은 기존의 문안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반영해 작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종교평화 불교인 선언 발표식은 내년 상반기 중 최종 선언문을 개최키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종교평화선언과 관련한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정천구 서울디지털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차이점의 존중을 말하고 있으나 동시에 진리가 다르지 않다는 점에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어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초안부터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한 윤법 스님은 최종안이 어떤 내용으로 발표되더라도 초안이 ‘신

도법스님, 중정 친견키로

공청회 · 집중토론회 계획도

반대 의견 팽팽해 미지수

학적 종교다원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이상 백지화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22일 발표했다.

스님은 “유신, 유야의 이웃종교는 무아와 무신이라 한 부처님 가르침에 반하는 그릇된 가치관으로서 따르거나 동조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 해야 옳으며 그래야만 나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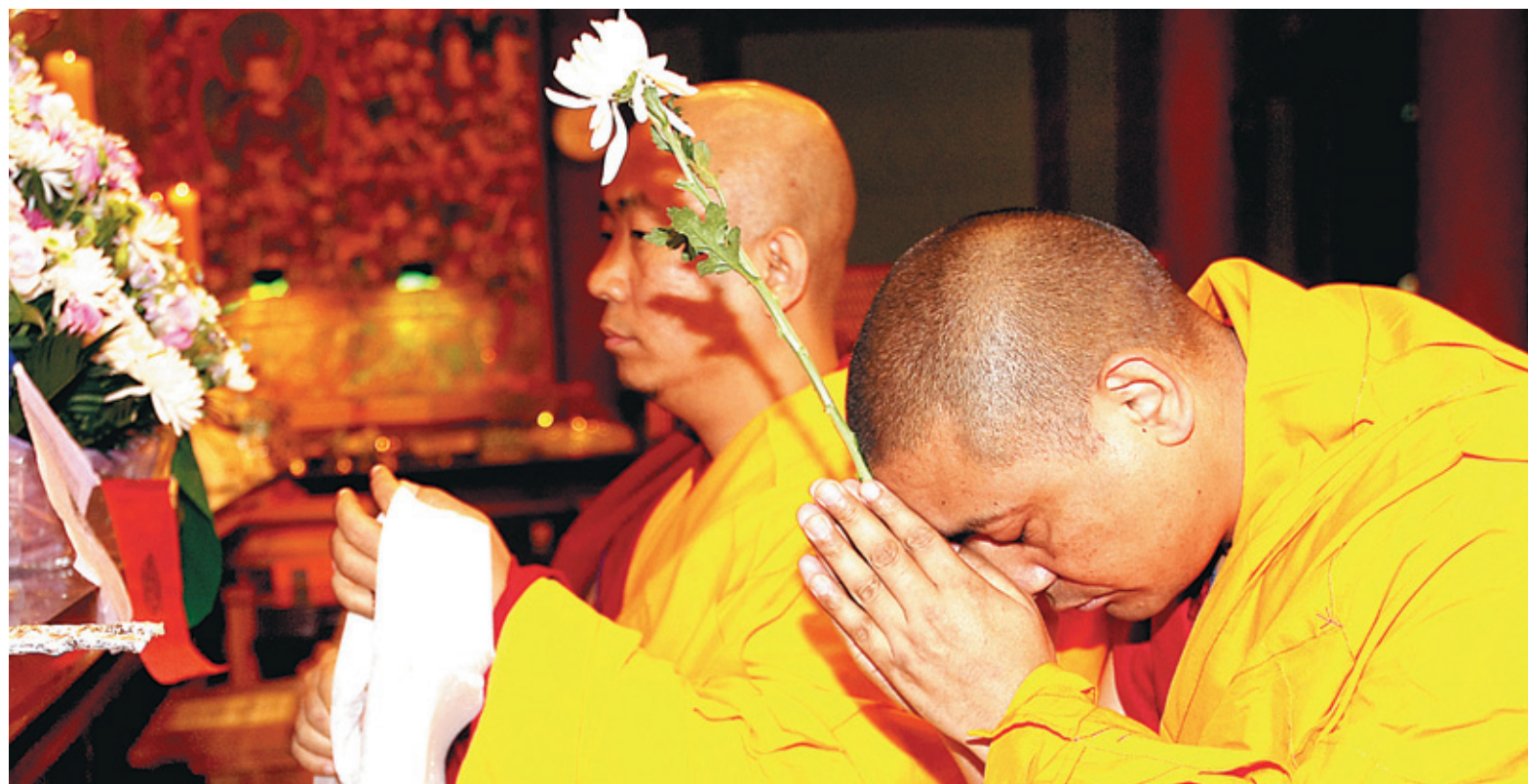
또한 교계 일각에서 회자된 가안에서 언급되고 있는 ‘원칙의 천명과 실천’안 5개항이 여전히 문제라

고 지적했다. 가안은 불교인들이 우리사회 종교평화 실현을 위해 5가지 원칙을 지키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5가지 원칙은 ▷불교를 통해서만 평화와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겠다 ▷내 종교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종교도 소중하게 여기겠다 ▷내 종교를 선전하기 위해 이웃 종교를 비방하지 않겠다 ▷내 믿음을 전하기 위해 공격 지위나 권력을 사용하지 않겠다 ▷어떤 갈등과 분쟁에서도 평화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 등이다.

그러나 스님은 1-3항은 마치 석가모니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직접 실천 것과 같은 것으로 착각이 들게 했고, 부처님이 경계하고 부정한 삼종외도(또는 6사외도)를 긍정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4-5항의 실천 안도 사실상 교단이 특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법 스님은 “정상적인 불교인의 입장에서 동의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고 단언한다. 선언문을 중정예하와 원로대중사님께서 추진 시종단은 물론 한국불교계가 이(理)와 사(事)적으로 대 논란이 예상된다. 중지 부재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티베트에 자유의 꽃 피어나길”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와 티벳하우스코리아가 티베트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소신공양한 스님들을 기리는 추모제를 12월 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마련했다. 티베트에서는 현재까지 13명의 스님들이 소신을 단행했다. 이번 추모제는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가 주관하고 조계종과 조계사, BTN 후원으로 진행됐다. 추모식 후에는 참가자들이 함께 조계사 경내에서 촛불 기도를 올렸다. 지관 스님은 호소문을 통해 “티베트인들에 대한 중국의 무력행위 중단을 촉구한다. 중국이 ‘공생공존, 자유와 평화’의 미래를 열어갈 것을 호소한다. 하루 빨리 티베트의 평화가 오길 부처님 전에 기도 한다”고 말했다.

글=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 사진=박재원 기자 wanihollo@hanmail.net

## 법타 스님, 은관문화훈장 등 수상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조국 평화통일불교협회 회장 · 사진)이 은관문화훈장과 세계평화상을 수상한다.



법타 스님은 12월 7일 정부로부터 생존인물에게 주어지는 훈장 중 최고 영예인 은관문화훈장을 받는다. 북한불교 문화재에 대한 보존 및 관리에 혁혁한 공을 세운 점이다.

법타 스님은 평불협을 창립한 이후 1998년 남한 최초로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위원장 김용순)와 금강산 문화유적 복구 협약을 맺었다. 이후 스님은 신라 고찰인 금강산 신계사 복원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이후 스님은 조선불교도연맹중앙위원회(위원장 심상진)와 북한 당국 조선문화보존총국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평양 용악산 범우암 단청불사 및 삼존불 개금, 사리원 등 불사 단청불사 및 삼존불 개금 등 북한불교문화재 보존에 선조적 역할을 해왔다.

또 조계종을 대표해 고려시대 사

찰인 개성 영통사 복원의 기초를 마련하고 천태종으로 하여금 기와 불사와 진입로 도로공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주선해 천태종의 대북불교 협력의 틀을 마련했다. 최근 조계종 민주분과 합동으로 낙후된 북한사찰 70개소에 대한 단정안료 지원도 했다.

한편, 법타 스님은 11월 29일 서울 메리어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뛰어난 공헌을 한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수여되는 ‘2011 글로벌 피스 어워드’(세계평화상) 초종교 부문상을 수상했다.

노덕형 기자

사령	
신규	최정희 (前 편집국장)
	주성원
명편집국	편집이사
명편집국	취재기자 신입(수습)
이상 2명,	2011년 12월 05일부

## 北스님들 DMZ 관통 월남 추진

보선 스님 인도에서... WFB 한국대회 참가 독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이 “2012년 여수 엑스포 기간 중에 있을 세계불교도우의회(WFB) 한국대회에 북한 스님들이 비무장지대(DMZ)를 거쳐 참가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11월 2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세계불교대회(Global Buddhist Congregation, GBC) 참석차 인도를 방문 중인 보선 스님은 “조계종이 주최하는 WFB 한국대회가 여수 박람회 기간인 내년 6월 11~16일 여수에서 열린다”며 “남북통일이 기여하는 의미에서 북한스님들이 제3국 대신 DMZ를 통해 남한으로 넘어와 대회에 참가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WFB는 1950년 스리랑카에서 결성된 범세계불교기구를 2년마다 각국을 순회하며 대회를 열고 있다. 1990년 서울에서 처음 열렸으나 당시에는 북한 대표단이 참가하지 않았다.

보선 스님은 인도 뉴델리에서 27일 나흘 일정으로 개막한 GBC 참가자들에게 남북한 불교계 상황을 설명하며 내년 WFB 한국대회에 많이 참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동섭 기자

## 865호 CONTENTS

종단 제6대 포교원 고불법회 불행 전국비구니회 10대 집행부 총무원장 예방

사회 · NGO 동국대 학부 개편 논란 자언공원법 개정법 개정 회의

인터뷰 주호영 국회의원

학술 · 문화계 완주 화암사 극락보전 국보 승격



나눔 아름다운 동행, 아프리카 돕기

신상품 LED인등 · 전구

찬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능인당

능인당의 침향전문점

침향갤러리

침향복합물 · 침향염주 · 침향선향

갤러리 02-738-6777 (조계사 맞은편)  
본사 02-3663-6777 www.mhw.com

## 염불 · 간경 · 참선 함께하는 결사

금강선원, 2039년 5월 17일까지 보살사상 만일결사

(화엄경)을 비롯한 불교경전들을 우리말로 풀어내며 역경사업에 한 획을 그었던 탄허 대종사의 정신을 잇는 만일결사가 선포됐다.

조계종 금강선원(선원장 해거)은 11월 26일 서울 강남구 ‘탄허대종사 기념박물관’에서 개관 1주년 기념행사를 맞아 보살사상 만일결사 선포식을 개최했다.

금강선원이 주창하는 보살사상은 나에 대한 집착을 끊어 사회 갈등을 타파하지는 적극적 실천운동으로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만일결사 삼대강령으로는 ‘울곧은 마음’ ‘깊은 마음’ ‘대자비 마음’을 내세우고 있다.

결사는 염불, 간경, 참선 세 가지 수행 파트로 나눠 진행된다. 매일 소리 내 ‘관세음보살’을 3000번 염불하는 염불회, <금강경>을 하루 2독하는 독송회, 좌선을 매일 1시간씩 하는 참선회가 그것이다.

염불과 간경, 참선을 함께 하거나 하나만 하려고 상관없지만 주가 되는 수행을 선택해야 한다. 5명이 한 팀을 이뤄 한 달에 한번 수행을 살피는 자리를 갖기 때문에 수행과 함께 실천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팀으로 구성된 결사 참가자는 매일 수행을 기록, 일지를 써야 한다.

이날 결사 선포식에는 무비 스님을 비롯해 각성 스님, Btn회장 성우

스님,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월정사 부주지 원행 스님, 흥사덕 국회의원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만일결사의 뜻을 기렸다.

무비 스님은 보살사상 만일결사 발원문을 통해 “부처님께서 참선, 염불, 강경의 세가지 만일결사 공덕을 널리 베풀어 사람마다 건강하고 나라마다 기근으로 궁핍함이 없어 집집마다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발원했다.

해거 스님은 인사말에서 “30년의 만일결사는 평생 살아갈 지침을 세워 스스로 약속하고 다짐하는 것이다”라며 “보살사상 만일결사운동을 다함께 실천해나가자”고 당부했다.

노덕형 기자 noduc@naver.com

## 차기종정 추대와 관련,

#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스님들께 드리는 공개서한 - 제1신 -

조계종의 원로스님들은 물론 전 사부대중과 한국의 불제자들 그리고 불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지성들은 90년대 3차례의 조계종단사태를 (이하 종단사태) 기억하실 것입니다. 특히 94년 종단사태의 주역들에 의해 주도된 종단 제도개혁은 조계종의 정체성 훼손은 물론 국가사회의 제반문제에 대한 불교계의 참여와 투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교교단으로서의 조계종의 성격을 크게 변질시켜 놓았습니다. 또한 최근 종교평화를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 (아쇼카 선언)에 대한 찬·반 논쟁에서 보듯이 제도권의 불교와 관련자들의 역할은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차기 종정 추대를 계기로 종단과 불제자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한국불교와 조계종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용성 내지 동산 문도의 한 사람으로서 종정 추대와 관련, 차기 스님의 견해와 입장을 밝히기로 하였습니다.

1.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은 종헌에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 조계종(이하 본종)의 신성상징과 종통승계의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가진 종단의 지존(종헌 제 19조)입니다. 따라서 본종의 종정은 교조 석존 이래 전승해 오는 신성한 가르침과 제불 여래의 범용성을 계승해 나아가길 지도자가 추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율장에 명시한 불교승단의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자격과 본종 종헌에 명시한 종정후보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물론 출가승단인 조계종의 정체성 나아가 조계선종이라고 하는 본종의 정통성을 지켜나갈 지도자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석존 이래 전승해 오는 제불여래의 범용성을 전승할

자격을 갖추거나 이에 버금가는 자격을 갖춘 대종사라면 누구도 종정으로 추대될 수 있다는 것이 스님의 견해입니다. 제불여래의 범용성에 관해서는 다음 제5항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 90년대 종단사태의 치유와 여법한 화합을 위해서 소위 개혁종단 초대 종정인인 윤월하 노사께서 종단화합과 조계종의 정화이념 및 정체성 회복을 위한 교시를 발표하셨습니다. 또한 개혁종단 제3대 종정인인 법전 대종사께서도 ‘화합은 승단의 제1 덕목이요 생명’이란 전제 아래 화합을 위해 사면할 것을 고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로회의는 종단화합을 위해 사면할 것을 유시함과 동시에, 도원대종사와 종산대종사님께서는 원로회의 의장단으로서 개혁종단 중앙종회에 가서서 역사에 기록될 ‘질’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의법불의인(依法不依人)’ 등 불설을 악용한 전략적인 언어구사와 종헌규정과 육의 정계규정도 반한 결석심판에 의한 치탈(탈법)과 같은 정계처분의 사면을 비불교적이라고 반대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비법불화의 결의로 종단정착과 정계를 자행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차기 종정은 이상과 같은 전략적인 언어구사에 휘둘리지 않는 지혜와 사명감을 가진 지도자가 추대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 원로회의와 종단 원로스님들께서는 승단이 불설에 입각한 장로들의 교시와 지도 아래 발전해 왔다는 사실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90년대 3차례의 종단사태와 제도개혁으로 인해 원로회의의 위상이 격하되고, 가장 중요한 종단의

종책조정이 종회중심으로 조정되고 있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는 불설에 입각한 갈마제도와 같은 선진화한 승단의 고유한 제도와 위계질서를 망각한 채 종단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종교에서 진정한 개혁이란 교조의 근본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불교승단의 경우는 불교의 본질적 가치의 종(宗)과 가치의 표현형식으로서의 교(敎)로 어떻게 시대사회에 적응시킬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94년 종단개혁은 본래 민중의 권력·지배를 의미하는 민주(民)를 개혁이념으로 천명하고, 세간의 선거제도를 확대·답습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오늘의 종단현실입니다.

4. 석존 이래 전승해 오는 제불여래의 범용성을 계승해 나아가길 차기 종정은 여법화합(如法和合)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정히 추대되어야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문종과 계파를 초월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단 내 종래의 문종과 계파는 대승열반경 계통에 속하는 대만니원경에서 말하는 3종의 승가 가운데, 청정의 승가로서가 아니라 동몽(童蒙)의 승가와 범죄(犯罪)의 승가로 전락해 있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스님은 용성 · 동산 문종에 속해 있지만, 현재 제도권의 일부 용성 · 동산문도는 용성 · 동산 · 성철로 계승되어 오는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문도의 근본정신과 올바른 전통을 처음부터 알지 못하거나 망각한 세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용성노사께서 시류에 편승한 재가승(대처승)들과 같은 종단의 승수(僧數)에 들 수 없다는 신념과 불제자의 양심으로 종단에 제적원(除籍願)을 제출하신 투철한 신념과 자세를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5항부터 3면에 계속 →

\*이 광고는 본사의 입찰과는 관계가 없으며 광고주 개인의 의견임을 밝힙니다.